

# 解放後 韓國의 都市景觀 變遷 및 그 要因 研究 - 서울을 중심으로 -

李 撸 穆

서울市立大學校 建築都市造景學部

## A Study on the Changes and Influencing Factors of Townscape in Korea since 1945

Lee, Kyu-Mok

Faculty of Architecture, Urban Engineer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he urban landscape of Korea, especially Seoul, changed during the last half century since 1945. The modernization of Korea, which had begun in 1960's after the chaotic period caused by Korean War, influenced the rapid growth of cities and the radical changes of its structures. But the Western-minded planning theories based on rationalism and positivism was directly applied in developing our traditional cities and consequently the modern urban landscape including urban pattern, architectural style, and commercial and residential landscape revealed disharmony, discrepancy and inconsistency in skylines, streetscape and so on.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Because the urban structure and pattern changed in undesirable manner in terms of land use and traffic circulation, cities as a whole resulted in exclusive and heterogeneous landscape, and citizens lost their identity and felt alienated.
2. Because the architectural forms of important and monumental buildings which influenced the character of streetscape were not so successful in inventing contemporary Korean Style in true sense, we still have difficulty in creating the urban landscape of originality and legibility.

3. Because from the beginning of this era almost all highrise buildings were designed by modernism-oriented Western architects, the commercial landscape of central cities did not evoke a sense of plac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postmodernism this tendency is more striking even in everyday ordinary streetscape.

4. The newly formed residential landscape which was mainly composed of highly dense and highrise apartment, not only evolved very overwhelming and ugly visual impact but also exposed many social problems in living condition, neighboring and face-to-face contact.

In conclusion, in order to define the 'Koreanness' of our urban landscape, we have to struggle to combine traditional architectural heritage and native townscape with Western shape, thought and theory, no matter how difficult it may be.

## 1. 들어가며

우리나라 도시의 모습이 오늘날과 같은 현대 도시로 바뀌기 시작한 계기는 19세기 말 개항기와 20세기 전반 일제시대의 식민통치에 의한 근대화 볼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근대화는 그 이전 조선중기 정조시대의 실학사상, 박지원이나 허균 등의 유토피아 사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미 본인의 다른 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필자, 1994; 1995). 본 연구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도시의 모습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해방후 반세기의 도시경관의 변화양상과 그 요인을 밝혀 근대화의 시작인 조선후기 및 일제시대로부터 읽어 내려온 우리 경관의 모습 들여다보기를 정리하려 한다. 이 시기의 경관변화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리된 단행본 하나 없고, 개별적인 건축물들에 대한 자료 혹은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계획중심의 자료들은 있으나 이들을 일관되게 꿰뚫어 보는 선행 연구도 미비한 것 같다. 더구나 건축과 도시를 총체적으로 보려는 도시경관의 관점에서 관찰된 자료는 더욱 찾아보기 힘든 것 같다. 이러한 실증적 자료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해방후 50여년의 경관변화를 개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도시경관을 읽는 관점은 도시를 체험

의 장으로 보고 장소론적 입장에 설 것이며, 여러 체험 및 비평자의 서술을 토대로 기술하면서 또한 현 시점을 살고 있는 필자 자신의 개인적 견해도 필연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단순한 기술적 비평(descriptive criticism)이라기보다 체험을 바탕으로 개인적 해석력을 가미한 해석적 비평(interpretive criticism)의 성격이라 볼 수 있다. 도시 전체의 이미지와 관련되는 도시골격요소와 패턴은 물론 구체적인 가로의 장소성에 관련되는 건물 개개의 형태와 양식의 문제들이 경관해석의 주요문제로 다루어진다. 또한 도시를 이루는 경관은 다양하겠지만 도시경관을 이루는 주요 경관유형으로서 상업경관과 주거경관이 해석의 대상이 된다. 자료수집의 제약상 논의의 대상은 주로 서울이 중심이 되었고, 주된 텍스트는 건축이나 도시와 관련된 정기 간행물에 소개된 작품들과 견해를 밝힌 글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1967년이 분야의 종합전문지로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온 「공간」을 1960, 70년대의 자료로 활용하였고 그 이후는 「꾸밈」(1976 창간), 「건축과 환경」(1984 창간), 「플러스」(1986 창간), 「건축세계」(1994 창간) 등 주로 건축전문지 및 일간지 기타 관련문헌이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사진 등 사실적 자료들은 생략했지만 도시의 이미지나 도상(icon)을 보여준다고 생각되는 몇 도면자료를 예로서 사용하였다.

## 2. 해방후 반세기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도시에의 영향

한국현대도시 형성의 가장 큰 영향요인은 무엇보다도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이룩한 근대화이다. 그러나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초기의 근대화과정을 겪었던 한국사회는 서양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보이는 기독교정신 등이 기초가 되어 자본에 대한 윤리가 합리화과정을 거쳤던 것 같은 정상적 과정이 없이 근대화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해방 후에도 계속되어 한국의 근대화는 여파 없이 외국의 모델을 그대로 수용하는 작업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도시사회는 서구처럼 시민혁명이나 산업혁명을 역사적으로 체험한 것도 아니며 그것을 담당할 시민계급의 육성도 없었다. 구질서의 논리라고 해서 조선시대를 지탱해온 유교문화를 배척하면서 거기에 대체되는 또 다른 윤리의 정립이 없었고 가장 생동적인 본능의 발동과 이기적인 개인주의 만이 팽배하였고 주도적으로 도시사회를 이끌어 가는 계급이나 집단도 없었다(최상철 외, 1981). 한국의 자본주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유교나 불교의 도덕률이나 서구의 정신에 배어 있는 근대 민주정신에 의하여 제어되지 않는 악성자본주의 혹은 물신주의의 성격을 내포하는 것이었으며 이 결과로 자본적 경제활동의 최대효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도덕한 수단방법도 용인되는 이른바 매판자본주의가 등장하기도 한다.

해방후 반세기 도시발전을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우선 해방후부터 1960년 제3공화국이 탄생하기까지를 한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이 시기는 남북분단, 6·25동란 등을 겪은 정치·경제적 혼란기로서 피난민의 도래와 불량주택의 발생, 전쟁의 피해와 복구 등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는 이렇다 할 변화양상은 보이지 않는 시기였고, 그 이후 1975년경까지를 다음 단계라고 보면 이 단계는 양적·질적 면에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여 전에 볼 수 없었던 도시의 팽창과 이에

따른 상대적 안정기라 할 수 있고, 1975년 이후 1980년대까지는 전형적인 산업사회의 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도시가 농촌에 비하여 월등히 지배적인 위치에 들어간 시기라고 볼 수 있다(최상철 외, 1981). 1990년대는 21세기를 바라보는 소위 세계화·정보화시기로서 세기말적인 현상과 함께 21세기와 연결되는 후기산업사회의 정조가 나타나는 시기라 볼 수 있다. 건축의 측면에서는 제3공화국 탄생 이후인 1960년대에 비로소 새로운 움직임이 보여 당시 구미에서 성숙했던 국제주의의 건축양식의 영향을 받은 건축이 나타났고, 최초의 건축예술 종합전문지인 공간도 창간되어 한국적 풍토를 감안한 새로운 조류의 건축을 모색하는 등이 시기가 한국에 있어서는 현대건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를 전기라고 본다면 1980년대 이후 서구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들어오고 우리건축의 지역성이나 풍토성이 거론되는 시기를 후기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한국의 현대건축은 근대건축의 도입기에 일본을 통해 서구의 사조가 들어왔을 때 그 사조를 따랐고 해방후 갑작스런 미국건축양식의 이입이 있은 후 또 그 사조를 따르는 등 거의 언제나 외국의 사조나 이즘의 변화에 병행하여 변모를 거듭해 왔기 때문에 건축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시기 구분은 무의미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시대적 맥락 속에서 성장한 우리의 도시계획이나 건축은 현실에 토대를 두고 주체적으로 키워낸 것이 아니라 일제시대에 타율적으로 근대화 되었듯이 외생적인 제도와 문화를 그대로 수입하여 시작되었다. 모더니즘의 지엽적인 기술은 받아들이면서도 서구에서 모더니즘이 잉태시킨 왕성한 현실비판정신과 개혁의지는 외면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도시계획은 기존질서의 부수적인 관리자로 스스로 왜소화하고 실무 쪽에서는 능률성을 내세우고 연구 쪽에서는 가치중립성을 내세워 도시계획의 궁극적인 과제를 피해가 버렸고(강홍빈, 공간 8502), 결과적으로 현실에 참여한 계획가는 행정주체나 정부당국의 심부름꾼의 역할밖

에 하지 못했다. 사실상 현대 서구에서 주도적으로 쓰였던 계획이론의 기초는 경험주의를 토대로 한 합리성의 추구였고, 그 방법론은 도구적 합리성 혹은 실증주의적 방법론에 기초한 과학적 계획이었으며 가치중립성이 주된 가치관으로 통용되었다. 사회구조의 총체적 연관에 관한 분석보다는 가시적 현상에 더 관심이 많아 드러난 문제의 해결에 주력하였으며 현실의 복잡성을 논리적으로 단순화하여, 우리나라 같이 중앙집권적 성장을 거듭한 나라에서는 많은 훌륭한 이론으로 다져진 계획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건축 또한 “무성격한 기능주의와 무비판한 외래건축의 형식적 모방”(정인국, 공간 6711)에 지나지 않아 서구 현대건축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극복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고 그 여파는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다.

이러한 해방후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도시계획이나 건축이론의 적용과정이 오늘날의 도시경관의 형성에 직접 영향을 준다. 다음절에서 살펴보겠지만 도시들은 서구처럼 건전한 상업형 도시라기보다 대도시 중심으로 소비형 도시로 중앙집중적인 발전을 하고, 도시가 너무 급속하게 커지면서 전통적인 것과 서구적인 것이 갈등 속에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또한 다양한 갈래의 서구모방적인 건축양식이 횡행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 3. 도시경관의 변천과 그 요인

#### 가. 도시골격의 변화; 서구적 모더니즘의 한계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했던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일제시의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적합치 않아 새로운 도시계획법과 건축법(1962)이 제정·공포되고, 다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이 도시계획법에서 분리·독립된다. 60년대 후반기는 도시의 평면적·입체적 확대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등 농업국가에서 탈

피하여 도시화의 시대로 들어간다. 또한 이와 더불어 시작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은 오늘날 IMF 시대 직전까지 이어진 고도경제성장의 시작으로서,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도시는 조선시대에 형성된 원형으로서의 전통도시, 개항 및 일제의 강압에 의한 초기 근대도시로 변한 이후 가장 큰 도시의 골격과 규모의 변화를 겪게 된다. 울산 등의 대규모 공업단지의 조성, 고속도로의 건설, 개발제한구역의 설정(1971), 주택건설촉진법(1972)에 의한 주택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양산체제의 확립 등 해방 50년의 건설사는 유례없는 개발과 건설의 역사라 할 만하였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기성시가지의 재개발은 물론 광활한 미개발지를 개발하여 예컨대 1960년대 말 당시(1967) 서울시장 김현옥은 음지를 양지로 하자는 운동을 펴, 모든 미개발지와 녹지를 개발하고자 하였고, 심지어 시정 목표를 ‘건설, 돌격의 해’로 하는 등 상식이하의 개발논리가 횡행하였다. 지금까지도 골칫거리인 세운상가의 비운은 당시에도 도시를 보는 예리한 눈이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공간 6804), 청계천을 가로지르는 3.1 고가도로는 “수도의 격조를 떨어뜨리는 전시효과적 과오”(이정덕, 공간 6804)라고 지적 받기도 하였다. 산꼭대기에 세운 와우아파트의 붕괴(1970. 4)는 이러한 졸속개발의 실패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사건으로서 당시 외국인들은 “빠른 경제성장 속의 불균형으로 발생되는 가공할 만한 현실”(공간 7005)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새로운 개발계획은 엄청난 토기투기로 이어져 신개발지는 이미 개발된 지역수준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부동산 투자수익이 생산기업 투자수익보다 웃도는 등 무자비한 자본의 논리와 상업주의가 우리 삶의 터전을 만드는 일에 주도적 논리로 정착하였다.

모든 기존환경을 무시하거나 지워버리고 백지에서 진행되는 개발의 물량주의와 거대주의는 오랜 세월의 축적으로 만들어진 도시환경의 다양성, 시간성, 생태적 복합성을 깨뜨린다(강홍빈, 공간 8502). 이러한 개발과 건설의 역

사는 수천 년간 누적되어온 역사적 환경을 철저히 훼손한 파괴의 역사였다. 짧은 시간 내에 ‘빨리빨리’ 만들어내야 하는 물량주의 건설풍조는 한국의 건축인들로 하여금 “역사상 가장 조악한 디자인 능력을 가진 존재”(김봉렬, 플러스 9508)로 전락시켰고 “도시사회 고유의 집단의식에 바탕을 둔 미적 공감대의 해체”(신기철, 건축과 환경 9009)에 까지 이른다.

겉으로 보이는 도시는 근대화하고 도시의 규모도 커졌지만 우리 나름의 자생적 이론구축 없이 외생적 계획이론에 의하여 급속하게 양산 위주로 만들어진 도시골격은 형성된 도시환경 전체를 배타적이고 이질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와, 도시는 우리의 정서와 동떨어진 삭막한 환경이 되어 버린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모더니즘적 방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분리된 토지이용은 나와 내 이웃의 생활패턴과 무관한 장소들을 양산하고 실제의 생활과 격리된 역기능을 유발하며 격리된 토지이용간의 불필요한 교통왕래와 이에 따른 혼잡을 가져온다. 이로서 예견되는 도시에 있어서의 인간소외와 장소성의 상실은 우리에게 많은 심리적 정신적 부담을 안기게 되는 것이다.

#### 나. 건축양식의 문제; 전통의 수용과 현대 양식

도시경관은 도시의 평면적 패턴으로서 골격과 더불어 입체적 형태와 공간에 의하여 형성된다. 마치 하나하나 나무의 형상과 크기가 자연경관 구성의 핵이듯이 도시경관은 개개 건축의 형태와 양식의 문제에 깊이 관여한다. 일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서구문물을 접하면서 서구화, 근대화의 길을 걸었던 우리 건축계는 무엇보다도 과거의 잔재로서 식민성을 극복하는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건축양식에 있어서 식민성이란 타율성, 종속성, 혹은 주변성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식민성의 극복에 관한 문제는 일제시대는 물론 일제의 지배를 벗어난 후에도 해방후 곧바로 미국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계속 겨안은 문제

로 남아, 우리 건축계는 자생적 건축양식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상황까지 지속된다. 숭미 주의적 의식과 일제가 깔아놓은 근대적 제도는 묘한 결합상태를 이루어 남한사회 특유의 사회구조로 정착하게 되고(한국건축역사학회, 1995) 이러한 풍토 하에서 우리 건축은 외국 건축의 수용과 전통의 계승이라는 문제와 더불어 현대 한국건축의 정통성을 모색하기 위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식민통치가 국가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해도 근대화라는 것이 단순히 생산력의 증대만을 의미하지 않고 봉건적인 모든 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규범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기회를 만드는 계기를 의미한다면 이 후자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면에서 식민통치는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현대건축이 발전해온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한국의 전통건축과 외래건축의 대립관계를 적절히 조화시켜 방향을 정립하지 못하고, 한국전통양식을 외래건축에 다 절충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외래전통건축을 그대로 수용하던지 하였다. 그것은 근대건축의 이입후 그것의 본질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극복의 과정을 거쳤다가 보다는 피상적인 모방이나 유아적 시도에 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윤승중, 공간 8402). 대략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 동안 이룩한 경제적 발전을 바탕으로 근대건축의 단순한 수용의 단계를 뛰어넘는 일대 전환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진다. 대형프로젝트, 복합프로젝트 등의 사회적 요구가 많아지고 새로운 세대의 건축가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건축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국제주의 양식을 지향하여 지역성과 풍토성이 무엇인가 찾으려는 노력이 보인다. 특히 60년대 후반의 건축에 있어서 전통논의는 한국건축의 양식을 논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다.

전통논의의 시작은 철저한 모방작업에 의하여 건설된 경복궁 경내의 국립민속박물관(구 국립중앙박물관, 1968)에서 비롯했다. 그것은 현상 응모한 강봉진이 설계한 것인데 법주사의

팔상전을 비롯하여 9개의 전통건축을 충실히 복사해서 콘크리트로 재현해 놓은 것이었다. 당시 이것은 “단순한 형태의 복고주의”, “시대착오적 행위”, “20세기 서울의 괴물 등장”, “넥타이 신사가 갓을 썼다” 등(공간 6701, 6702)의 악평을 받았다. 보다 본격적인 건축 양식 시비는 김수근 설계의 부여박물관(1969)이 ‘일본신사 같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사회전반의 큰 문제로까지 발전하면서 시작되었다. 건축가를 비롯한 많은 문화관련 인사들의 논쟁이 있었고 결론은 부분적으로 일본식의 냄새를 풍기기는 하나 일본 그것의 모방은 아니다라고 났지만 이것은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식민성의 문제, 민족감정의 문제와 결부되어 감정적 결말이 난 것이지 진정한 건축비평과 형태분석을 토대로 한 결론은 아니었다. 이들을 비롯한 몇몇 공공성격의 건축물들은 전통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거론되었고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우수한 건축으로 1960년대초 김중업 설계의 주한 프랑스 대사관(1961)이 설문조사에서 부각되기도 했지만(공간 6712) 정답을 찾기 위한 진지한 건축비평의 풍토는 외면한 채 그 계승의 문제는 계속 미완의 장으로 남아 있었다.

우리의 지식과 정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세웠다는 국회의사당(1968-1975)이 준공되었을 때에도 예외 없이 건축계의 전통논의를 가져와, 그 엄청난 건축계의 노력과 관아건축으로서의 기념성에도 불구하고 조형적 특징이 뚜렷하지 못하여 “이종교배의 기형, 국적불명의 무대장치, 문화사의 하나의 시행착오”(김원, 공간 7510), “저녁놀 속의 괴물”(박래경, 앞책) 등의 혹평이 있었다. 이것은 국회의사당 건축의 디자인 발상이 일관된 한 건축가의 창의력에 의존하지 못하고 여러 건축가의 협동설계로 전혀 이질적인 정신의 소산인 몇 개의 양식을 필연적인 연결 없이 연결해서 사용하는 데서 비롯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전통을 의식한 건축은 계속 등장하여 광화문 서울의 중심가로 축에 세종문화회관(1974-1978)이 들어섰고 천안에 독립기념관(1986)이 화제만발의 현상설계를 통하여 건립되었고 이어서 예술의 전당

(1988-1993)이 위치상 문제가 있다는 논란을 무릅쓰고 남부순환도로변에 세워졌는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 박정희시대 아래 군사정권의 건축문화를 대변하는 “관제건축양식”(건축미학 연구회, 1987)으로 볼 수 있다.

엄덕문이 설계한 세종문화회관은 당시 평양의 대강당을 의식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수용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많은 좌석수(4240석)를 수용했는데 한국적 문양을 도입하는 등 전통을 의식했지만 디테일의 구현에 그쳐, 시대를 상징하는 문화의 표상으로서 보편적 가치관을 표현하지 못하고 창조를 도피하는 전통건축이었다(공간 7805)라고 평을 받았다. 그러나 이 회관은 우리나라의 상징가로 축인 광화문의 한 파사드를 점하고 있어 외국인에게는 아직도 가장 인상에 남는 건물로 꼽힌다(한국일보, 1991. 7. 14). 근년에 새롭게 치장하고 야간 조명으로 야경효과도 높이는 등 밉던 곳에 우리 전통양식의 현대화의 한 예로서 가치를 갖고 있다. 일본과 일제시의 피해를 의식하여 국민 모금으로 건립한 독립기념관은 대형 기와집을 상징물로 세우는 등 과감하게 전통건축을 직설화법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현상설계 당시에 “15년도 넘게 끌어온 전통논의가 독립기념관을 설계해야 하는 오늘의 건축가에게까지 시원스럽게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가”(김경수, 공간 8404)라고 개탄하게 하였고 한마디로 직설적 복고주의, “퇴행적 유托피아의 목마”(김용석, 건축과 환경 8709)라는 평을 듣기도 했다. 군사정권 최대작이라 할 수 있는 예술의 전당은 지명현상으로 김석철이 당선되었지만 심사공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당선작 발표를 지연시키면서 결정된 최종안이 당선작가의 응모안과는 달리 상당부분 개작된 샷갓과 부채를 모방한 단순하고 일의적인 건물로 나타나, 한국건축문화의 에포크는 저편으로 아득히 사라졌다라는 아쉬움을 남겼다(공간 8412). 이들은 모두 경직된 군사정권의 산물로서 화석화된 전통에 그대로 회귀함으로써 단순한 복고주의로 퇴행한다는 국수적 내셔널리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 우리 시대의 상징물로서 세워진 건물들은 거의 전부 도시 속의 주요지점을 점하여 서구 국제주의 양식의 산물인 범상한 상업건축물을 속에서 도시경관의 성격과 특징을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상징가로의 한 측면을 장식하는 세종문화회관, 여의도의 터미널 비스타인 국회의사당, 남부순환도로의 랜드마크인 예술의 전당이 그 예이다. 대략 1980년대에 들어와 국제주의 양식의 획일성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고 개성과 다양성이 중시되며 지역주의 혹은 풍토주의에서 벗어난 건축들이 도시경관에 나타나고 있지만 기념성이 있는 건축에 대한 이 양식에 있어서의 전통과 현대, 서구와 동양의 대립과 조화 문제는 계속 미해결의 장으로 남는다.

#### 다. 상업경관의 변화: 고층화와 정체성

해방후 도시경관의 변화, 특히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주도한 것은 고층건물의 등장일 것이다. 고층화가 건축계의 문제가 되고 고층건축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말 광화문에 22층 높이의 정부종합청사(1967-70)가 들어서면서부터이다. 당초 현상설계에 의하여 나상진이 당선되었으나 정부당국은 한국건축가의 설계를 불신하고 외국의 설계용역회사(P A & E)에 재용역하여 결국 외국인의 디자인에 의하여 세워지게 되었다. 그 이후 바로 등장한 18층 높이의 조선호텔(1970)도 그 호텔의 차관을 제공한 회사가 한국인의 설계를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기본설계 마무리단계에서 외국인(W. B. Tabler)에 재설계하여 건립되었다. 이어서 종로에 김중업의 설계로 유리마천루의 삼일빌딩(1969-70)이 세워져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우뚝 솟은 모습(31층)과 고층구조를 상징하는 건물로서, 강북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서 조형적으로 매우 주목을 받았다(공간 7002). 그러나 이것은 비록 한국 건축가의 설계로 세워지기는 했지만 그 디자인의 원천은 미국 유리마천루의 원조격인 로에(Mies van

del Rohe)의 뉴욕에 있는 시그램빌딩(1958)의 아류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듯 한국의 고층건축은 시작부터 외국인의 손에 의하거나 외국 것을 모방하는 형태로 우리 도시경관에 나타나 근대도시로의 변모는 적절한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과도적인 조급성을 보였고 우리 나름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여 예컨대 한 시인의 눈에는 “정서의 불모성이나 미학의 허탈”(박목월, 공간 7002)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다.

1980년대 초 건립 당시 동양최고의 높이를 자랑했던 60층 높이의 여의도 대한생명 63빌딩(1979-85)도 번쩍이는 황금유리탑의 위용을 자랑했지만 역시 외국설계가와의 합작(박춘명+SOM)이었고 최고 콤플렉스의 충족을 위한 상업주의적 발상에 치우쳐 주변도시환경과의 만남에서 유발되는 도시적 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합리적인 타당성연구는 없었다. 유사한 시기에 도시경관 속에 등장한 여의도의 렉키움성 트원타워(1983-87), 광화문의 교보빌딩(1978-83)도 똑같은 선예에 의하여 설계·건립되었다. 특히 서울의 상징적인 세종로와 종로의 교차점에 위치한 교보빌딩은 미국의 건축가 펠리(C. Pelli)에 의하여 설계되기는 했지만 같은 건축가가 일본적인 조형적 특성을 살려서 설계한 동경의 미국대사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이어서 외제 모조품의 수준을 탈피하지 못했을 뿐더러 이념적인 문제까지 야기했다. 더구나 이 건물의 건축주는 이 건물의 외관을 교보의 상징으로 하여 전국 어디에나 이 축소판을 그 장소에 관계없이 세우고 있으니 그것은 모방의 모방이라 할 수 있는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듯 우리의 고층건물은 외제복고주의의 틀을 쓰고 있으며(청년건축인협의회 선언문, 1987. 11) 우리의 도시경관을 국적불명의 스카이라인으로 장식하게 한다.

강남의 테헤란로는 20층 이상의 고층빌딩이 수십 채 집중적으로 들어서 그 이국적인 가로의 명칭과 함께 새로운 이미지의 가로경관을 형성해 가는 거리이다. 흔히 “한국의 월가”, “서울 최고의 오피스 스트리트”(<그림-1>참조; 조선일보, 1992. 5. 16)로 불리듯이 서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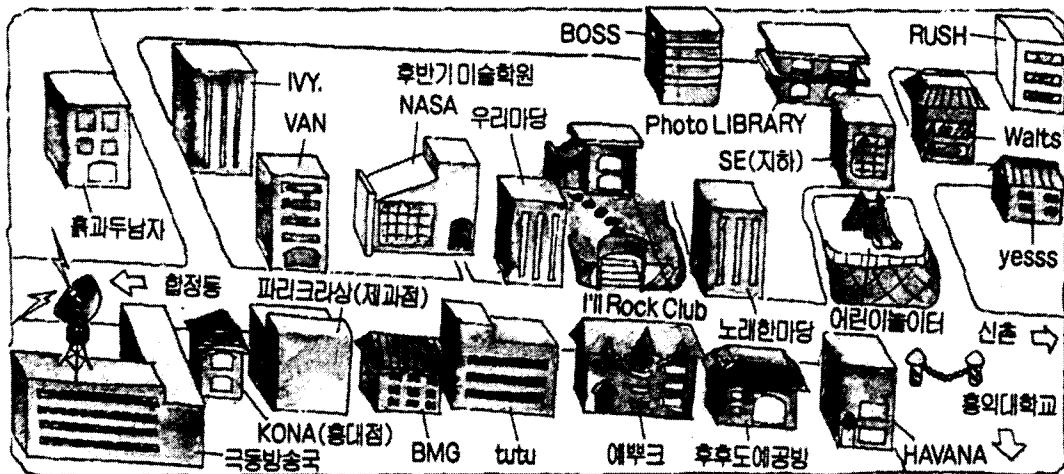
〈그림-1〉 중요하게 인지되는 건물이 나타난 한국의 월가 테헤란로의 안내도(자료: 조선일보, 1992. 5. 16)

새로운 도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조선시대의 종로거리, 일제시대의 명동거리가 각기 그 시대를 대표한다면 이 거리는 해방후 우리가 만든 가장 특징적인 거리라 볼 수 있다. 여기에 복합건물군인 무역센타(1987)가 일찍이 역시 앞의 예대로 한일합작(니켄세케이+윤승중+김정철)으로 들어서 테헤란로의 한쪽 끝에 자리하고 있다. 이 건물은 여러 면에서 1980년대를 대표하는 것으로 당시 “지난 20년의 경제성장의 노력을 자축하는 기념비적 존재”(서울신문, 1993. 6. 5)라는 평을 받았으나 역시 외국인의 설계에 의한 외제 랜드마크임을 면치 못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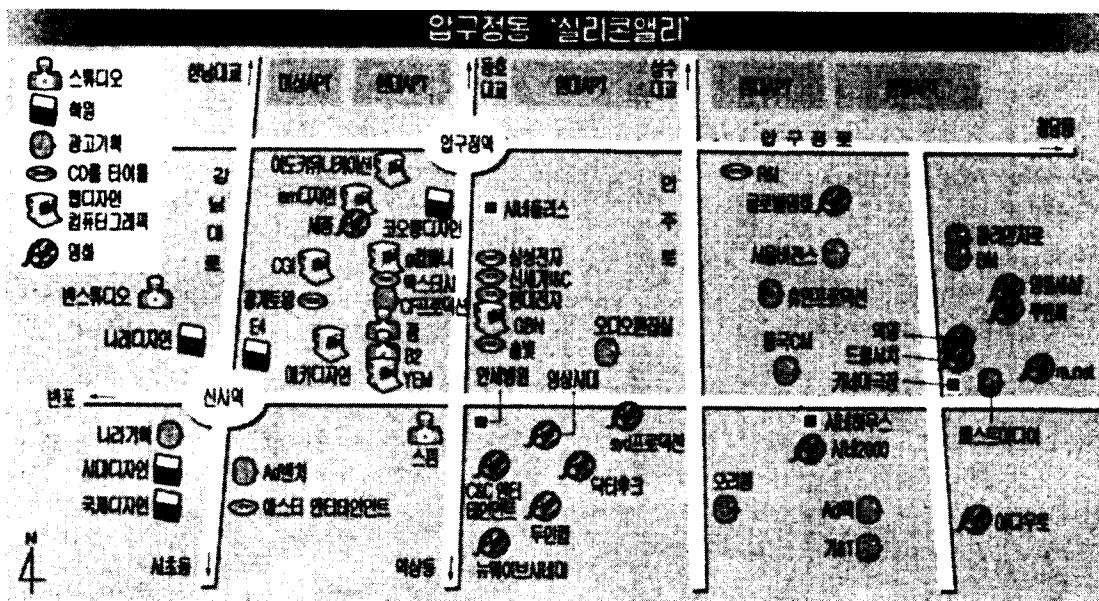
다. 물론 최고수준의 세계적 건물로서 자부심을 가질 정도라면 외국인의 손을 빌리는 것도 상관 없겠으나 문제는 어떤 아류 혹은 이류 상업주의적 건물이라는데 있는 것이다. 최근에 테헤란로에 등장한 원정수 설계의 포스코 빌딩이 순수한 우리기술에 의한 새로운 조형감각과 참신한 도시적 기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전반적인 고층건물들은 스카이라인의 형성이나 가로경관의 구성에 있어서 거리 나름의 특징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년에 걸친 경제 성장과 그에 따른 도시지역의 확산과 정비와 함께 우리의 도시 속에는 대규모 고층건물의 양적 발전에 더하여 소규모 상업건물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 시기는 특히 포스트 모던 건축들이 한국사회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로서 새로운 문화 추구에 대한 문화논리, 부동산 시장의 논리, 유통 소비산업의 논리 등과 결합하여 압구정동 일대, 청담동 일대, 홍대입구, 신촌 등에 소규모 상업건물의 확대에 의한 새로운 도시경관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들 건물들은 대중의 풍요로운 생활환경을 그대로 담고 있어 가로경관과 도시 생활의 행위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당시 외래 풍조인 포스트모더니즘의 온갖 유형이 그대로 적용되어 이들 건물은 감각적 유행성을 추구하거나 다양한 디자인 모티프와 설계방법에 의하여 천태만상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외생적이고 모방적인 동기에 의하여 세워진 이들 건물들은 인테리어디자인적인 처리에 의한 패사드의 즐거움만을 표현하고(공간 8408) 그 장소의 성격을 특정화시키지 못하여, 도시경관의 큰 흐름을 형성치 못하고 개개의 건물이 갖는 상업성과 그에 따른 유행성만을 추구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이 갑자기 부상된 젊은이들의 거리에서 벌어지는 부정적인 행태는 이 시대 우리 사회의 빼뚫어진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소위 “한국자본주의의 욕망구조를 표상한다”(강내희 외, 1992)는 ‘패션의 메카’ 압구정동은 주거건물과 상점, 고급패션점과 온갖 패스



〈그림-2〉 거리의 성격에 맞는 건물이 표현된 홍대앞 카페거리 안내도(자료; 일간스포츠, 1992. 10. 26)



〈그림-3〉 실리콘 앤리로 변모하는 특징을 보여 주는 압구정로(자료; 중앙일보, 1998. 3. 5)

트푸드, 점잖은 오피스건물과 서양 고전건축의 모조품이 혼재하여 '빼곡한 서구풍의 건물들'로 이국으로 착각케 한다. 이 거리는 새로운 형태의 인간형인 압구정족, 오렌지족을 탄생시켰으며, 이들은 한 때 이 시대의 대중문화를 압도하기도 했다. 소위 한국의 상젤리제라는 청담동 거리는 온통 미국과 유럽의 브랜드점, 명품전시장을 방불케하고, 미국 비버리힐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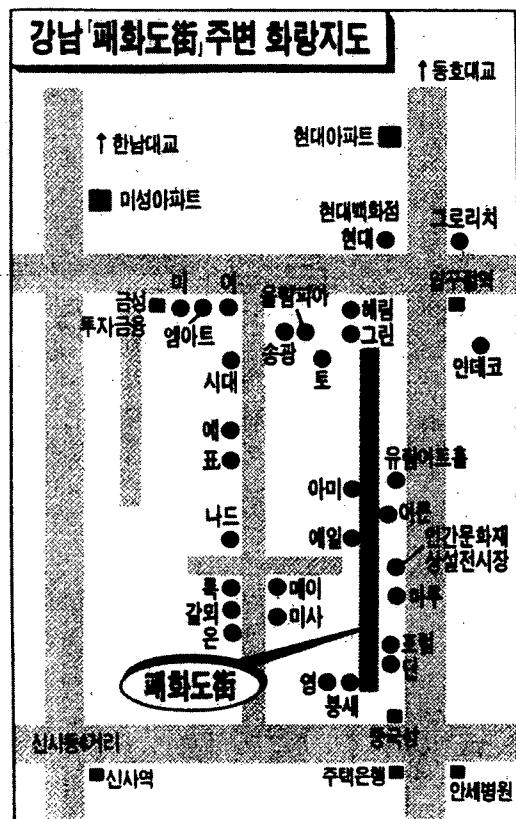
최고급 패션거리 로데오 애비뉴에서 그 이름을 따온 로데오의 거리는 이 땅 신흥자본 상류층의 집단대명사로, 넘치는 부를 상징하고 이 땅 줄부들의 끝없는 욕망과 타락의 전시장이 되고 있다(앞책). 어느 평자의 말대로 "천박한 서구 콤플렉스에 기인하는 자본주의 첨단도시의 무차별한 혼성모방"(최태만, 1995)이라 할 만하다. 압구정동의 쇠퇴와 함께 1980년대 말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홍대앞 카페의 거리는 젊은 이들이 즐겨 찾는 개성 있는 거리로 부각되어 “이국적인 풍경이 물씬 묻어나는 건물들” (<그림-2>참조; 일간스포츠, 1992. 10. 29)로 가득차 있다. 이러한 풍조의 젊은이의 거리는 지방도시에도 만연하여 부산의 부산대학앞, 전주의 관통로 일명 ‘떡골목’, 대구의 명동 동성로에도 형성되었다. 이러한 소규모 외래적인 상업건물들에 의한 가로경관은 저속한 상업주의, 소비주의와 결합되어 이렇듯 전국의 대도시의 중심부 뿐 아니라 도시 전지역의 소규모 상업중심지에도 파급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일상적인 가로경관 나아가 우리의 건축문화를 더욱 황폐시키고 있다.

부의 중심이었던 서울의 강남은 “문화의 중심”(문화일보, 1993. 2. 10)으로 거듭 나려고 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와 압구정동은 각종 음악 및 연주관련시설이 늘어나면서 “음악의 거리”(토요신문, 1995. 3. 4)로 변신을 노리고 있으며, 압구정역 근처는 다양한 콘텐츠회사 400여 개가 모여 “실리콘 엘리(골목길)”(<그림-3>참조; 중앙일보, 1998. 3. 5)로 변모하고 있다. 청담동은 매년 청담미술제가 화랑가를 중심으로 열리고 있어 문화의 거리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강남 현대백화점앞은 소위 ‘패화도의 거리(패션·도예·화랑의 거리; <그림-4>참조)’가 형성되어 강북의 인사동 전통문화의 거리와 쌍벽을 이루려 한다. 앞으로 IMF사태 등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가로경관의 질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아직 바람직한 우리 정체성 찾기, ‘장소 만들기’라 볼 수는 없고, 징조가 있다 해도 이러한 의식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가로경관이나 건축양식으로 나타나 정착되기에는 이르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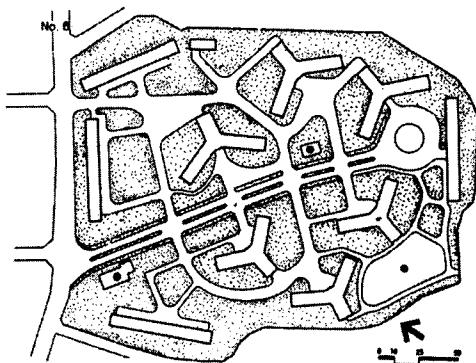
#### 라. 주거경관의 변화; 아파트 문화시대

본래부터 단층 혹은 이층정도의 한옥이나 양옥이 주도했던 우리나라의 주거경관에 있어 해방이후 가장 큰 변화는 아파트의 건설에 의한



<그림-4> 주제에 맞는 건물이 주로 나타난 강남 패화도의 거리(자료; 한국일보, 1992. 4. 25)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문화는 일제시대 조선주택영단의 후신으로 주택공사(1962)가 창립되고 처음 마포에 아파트단지(1964)가 준공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6층규모 142 세대의 마포아파트(<그림-5>)는 현재는 삼성건설에 의한 재건축아파트의 건설로 없어졌지만 당시 아파트문화를 선도하는 파이오니아 아파트로서 가장 먼저 아파트단지라는 개념을 일반인에게 심어준 것이었고 당시 이 아파트를 소재와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많이 제작될 정도로 명물이 되었다. 이어서 1960년대 후반에 영세민을 위한 아파트가 서울시의 주관 하에 세워졌고, 1970년대 상반기에는 중산층이상을 위한 소위 맨션아파트가 가용지가 풍부한 한강연안에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아파트는 새롭게 집을 마련하려는 대다



〈그림-5〉 지금은 도면으로만 남은 마포아파트 배치도  
(자료; 주택공사, 1979)

수 계층의 도시민을 위한 주거유형이 되었다  
(〈그림-5〉 참조).

특히 1970년대 중반 잠실빨에 세워진 잠실지구의 아파트단지(1977)는 당시 규모로서는 국내 최대로서 동부서울 부도심권을 형성할 정도로 방대하였고 서구의 계획기법인 균린주구 개발수법을 도입하여 다양한 배치에 의한 균린주구단위로 계획한 것이었다. 당시 처음으로 중심부에 일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고층 아파트가 도입되었는데, 이 이후 지가 상승과 주거밀도에 대한 압력을 받으면서 거의 모든 아파트가 고층화되어 이제 우리나라에 전립되는 아파트는 그것이 어느 장소에 올라가든 고층 혹은 초고층아파트의 단일 유형으로 되고 있다. 대규모 주택단지의 개발은 서울시만 예로 보아도 반포주공아파트단지개발(1974-77), 둔촌 개포주공아파트단지 개발, 목동신시가지개발, 상계 중계 하계 주택단지개발 그리고 5대 신도시의 개발 등등 끈임 없이 이어졌다. 더구나 1990년대이후 무리한 주택건설 200만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폭적으로 건축법을 완화조치하여(대표적인 예로 용적률 400%이하, 건물간 인동간격 완화 등), 재건축과 재개발에 의한 고층아파트의 건립이 활성화되었고, 도시 속에 개발 가능한 택지가 거의 바닥나면서 아파트는 기존 주거지에도 거침없이 들어서게 되었다. 더구나 오락가락 하는 준농림지정책으로 수도권 주요지역의 농지와 임야가 마구

잡이로 개발되어 도시외곽 시골 논 한복판에도 고층아파트가 올라서 농촌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수질과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서울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크게 활성화되었던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공급의 확대와 사업성 확보에 주력함으로써 고층 고밀아파트단지 개발로 개발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과밀과 혼잡, 공공시설의 부족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단지개발의 법적 기반이 되었던 주택건설촉진법은 양적 촉진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그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지만 주택의 품질과 생활의 질은 보장하지 못하는 개발위주의 악법이었다.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보다는 주택공급의 논리가 우선했고, 도시환경이나 지역특성을 도외시하고 어디에나 고층 고밀아파트를 전립하여 자연경관을 해치고 도시경관의 부조화를 가져왔으며, 개발이익을 중시하는 재개발로 기준에 살고 있던 저소득층의 생활근거지를 상실케 하여 도시빈민층을 재 추방했으며, 개발자 입장에서 개발이익의 극대화만을 추구하여 단지내의 거주성을 악화시켰고,



신용과 신속한 업무처리로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그림-6〉 도상으로 나타난 고층아파트 광고의 한 예  
(자료; 조선일보, 1992. 7. 6)

주거공간의 극대화를 피하여 단지주변의 공공 시설의 부하를 증대시켰다. 특히 재건축사업은 주택공급의 수단으로서만 사용되었지 주거환경의 질을 높인다거나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향상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아파트라는 주거유형은 투자대상으로서는 매력적이지만 잊은 이사와 이동선호의 경향이 있어 주거의 장소성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편리한 생활양식으로 생활을 인스턴트화하고 편의주의적 사고를 유발시킨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공간에 길들여진 주민을 새로운 인간형태로 바꾸게 하여 주민을 소시민화한다. 획일적인 환경에서 오는 이웃관계의 결여, 공동체의식의 결여, 자연으로부터의 고립에서 오는 심리적인 문제도 있다. 아파트야말로 현대인의 소외와 획일화현상을 압축하여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이동하, 문학정신 9303). 아파트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것이 물리적 성취의 정도를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고 있다는 점이며 그 결과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어디에 얼마만한 크기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기준에 의하여 사람의 계층적 소속이 구분되고 그렇게 구분된 여러 계층들 사이에 날카로운 불신과 차별의식의 강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앞 책). 전통적인 농촌집합체보다 못한, 사회생활이 배제된 “인간의 이방지대”(김홍식, 공간 7906)라고 볼 수도 있다.

개발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공급자위주의 이 척박한 아파트문화는 1990년대에 들어와 실수요자들이 외면함으로써 비록 소극적이지만 서서히 바뀌고 있다. ‘지으면 팔리던 때는 지났다’라는 인식과 함께 아파트문화에도 차별화 바람이 불고 있다. 다소 과대 포장된 감은 있지만 최근 “테마아파트”(한국일보, 1996. 6. 21), 환경친화형주거단지 등의 명칭을 가진 단지개발이 그 예이다. 기능성을 강조하는 테마아파트는 환경형 건강형 교육형 실버형 레저형 등의 테마를 부여하여 분양을 촉진하고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이자는 것으로서 앞으로 이런 유형의 개량된 아파트유형이 많이 제시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목적에 적합한 수준 높은 주거단지인지는 의심스럽다. 환경친화형주거단지의 개발은 여러 개발회사에서 선전하고 있고 말은 그럴싸하지만 단지 내에 자연요소와 녹지를 많이 도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주거밀도를 낮추고 건축제도와 법규를 고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개발유형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존주택가를 잠식해 들어서고 있는 다세대주택 혹은 다가구주택이 그 환경의 과밀성에도 불구하고 본래 지니고 있는 주거경관의 분위기를 유지한다는 면에서 앞으로 보다 개선한다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우리의 도시경관은 이 기형적인 단지중심의 주거유형에 의하여 그 기본적인 도시조직은 물론 도시내의 사회적 기능이 기형화되고 있다. 소위 ‘단지’ 단위로 도시 속에서 분리된 아파트들은 주변 도시지역에서 하나의 격리된 섬으로 되어 그 도시지역의 경관적 조화와 사회적 기능을 교란시킨다. 고층아파트는 다양한 계층과 취향의 주민들에게 거주성의 측면에서 별 별일 없는 단일유형의 주거방식을 강요할 뿐 아니라 이 시대의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주거경관을 전국 어디에나 일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4. 결론; 한국도시경관의 한국성 찾기

지금까지 해방후 도시경관이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해 온 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으로서 우리는 일제시대부터 해방을 거쳐 오늘날까지 자생적이고 자주적인 도시형성의 기본 틀을 갖지 못하고 서구의 모더니즘적 기법을 그대로 적용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의 전통건축과는 서로 이질적인 서구 건축양식의 도입과정에서 건축양식의 면에서 전통과의 갈등을 소화하지 못하고 적절한 조화 내지는 전통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건축문화의 주변성을 탈피하지 못한 채 외국의 사조가 모더니즘이든 포스트모더니즘이든 꾀상적으로 차

용되거나 도입되면서 우리 나름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유교윤리에 대체할 만한 건전한 사회적 가치관의 정립이 없이 천박한 경제논리와 상업주의가 우리 도시경관 특히 주거경관의 형성에 크게 영향하였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도시경관은 새로운 계획개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제로 한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맞아야 한다.

이 현대 우리 도시경관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도시경관의 ‘한국성’의 문제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이 시대 우리 건축의 한국성은 무엇이며(플러스 9505 특집) 우리 도시의 한국성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한국성이란, 어떤 한국의 원형(原型) 혹은 정답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자는 태도보다는 서구에 뿌리를 가진 서구적 모더니즘도 아니고, 일제 식민성도 배제하면서 우리 전통양식과 다른 ‘우리 스스로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라는 보다 조작적 정의에 입각한 개념을 설정하는 태도가 현단계에서 더 유용한 태도라고 본다. 그것은 우리의 풍토, 우리 고유의 삶과 우리의 체질에 맞는 정서를 기초로 해야 할 것이다.

다른 연구에서 이미 밝혔듯이 우리것을 찾는 노력의 시작은 조선 중기 이중환이 제시했던 길지사상이나, 박지원의 허생전에 보였던 유토피아사상(필자, 1990)이라고 본다. 이들의 사회개혁적 사상들은 실학파학자 박제가 등의 북학의에 제시된 대로 현실적인 도시문제로 귀착하고, 이들의 주장은 구한말 김옥균 등의 치도론으로, 이것은 다시 한성부윤 이채연의 한성부개조사업으로 실현화의 단계까지 이어졌다(필자, 1994). 이 일연의 맥락으로 연결된 노력들은 일제 강압에 의하여 완전히 말살되고 우리의 도시들은 식민도시로 전락한다. 물론 일제하에서도 종로의 이충한옥상가처럼 우리 고유의 가로경관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계기도 있었다. 그러나 해방후 갑작스러운 서구화와 외래문화의 도입으로 우리의 도시들은 엄청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대도시로의 상상적인 발전이 왜곡되면서 싸구려 미국 도시(cheap American cities), “외래문화의 무국적도시”(김석철, 건축문화 9801)로 되어버린 것이다.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서구문화의 변방에 있다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유럽 이외의 모든 지역을 변방으로 간주하는 유럽인 특유의 사고체계인 유럽중심주의(Europo-centrism, 최성호, 1979)에 젖어 있는 바, 이 사고체계는 그 원류인 유럽으로부터 도전 받고 있다. 시펜글러의 ‘서구의 몰락’에서 보듯이 중심은 몰락하고 변방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다원적 세계관이 정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시각의 분산화, 비중심화 나아가 우리가 가장 취하기 쉬운 대안으로서 동양적 접근태도의 가능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 문화의 중심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기능적 합리성만을 추구해온 근대건축의 보편성이 갖는 한계를 극복해야 할 뿐 아니라 탈근대주의의 건축이나 이성주의 건축의 ‘형태적 표현추구가 갖는 유희성’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하며(이상해, 공간 8706), 우리 한국의 지역성 장소성과 도시적 맥락에서 나오는 도시와 건축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의 역사성과 장소성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시도해야 하고 우리의 건축을 찾는 행위는 ‘전통적 자아와 근대적 자아가 균형을 이루면서 상호작용’하는 속에서 자아실현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이정근, 플러스 9712) 그러한 속에서 우리 중심의 회복, 진정한 한국성의 정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흔히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고, 한국적인 것이 필연적으로 만나는 외래적인 것과 부딪히고 깨지는 과정을 거쳐 거듭 남으로써 한국성은 달성될 것이다. 그러한 도시와 건축, 도시경관의 미래상은 삶의 양식에 기초하고 우리 시대의 문화를 째뚫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인용 및 참고문헌

### - 단행본 및 논문

1. 강내희 외(1992) 압구정동: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서울, 현실문화연구.
2. 김영환(1997)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단지의 주거환경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3. 대한주택공사(1979) 대한주택공사 20년사.
4. 건축미학연구회(1987) 민족건축미학연구, 2, 서울, 대건사.
5. 서울시(1995) 바른 시정계획을 위한 국제 세미나; 인간중심의 도시 서울을 향하여.
6. 양윤재·양승호(1996) “재건축사업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의 모색”, 환경논총, 34, 서울대 환경대학원.
7. 이규목(1990) “한국의 유토피아 연구”, 윤정섭 편저, 한국의 도시연구, 서울, 문운당.
8. \_\_\_\_\_(1994) “조선후기 서울의 도시경관과 그 이미지”, 서울학연구, 창간호,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9. \_\_\_\_\_(1995) “일제시대 한국의 도시경관 변천 및 그 요인에 관한 연구”, 연구논총, 21, 서울시립대 수도권개발 연구소.
10. 최상철 외(1981) 한국도시개발론, 서울, 일지사.
11. 최성호(1979-80) “동양과 서양문화의 상호작용과 현대”, (1)-(8), 공간, 7908-8008 연재.
12. 최태만(1995) 미술과 도시, 서울, 열화당.
13. 한국건축기협회(1995) 서울의 건축(사진집).
14. 한국건축역사학회(1995. 9) 광복 50주년기념 특별학술발표회; 광복후 50년 한국건축의 식민성.
15. 한국공간환경연구회(1993) 서울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16. 한국조경학회(1997. 8) 한국의 도시가로환경 개선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17. 환경계획연구소(1996) 제2회 도시·환경 정책세미나; 주택공급 논리에 파괴되는 우리나라 도시,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연구소.

18. Relph, Edward(1989) *The Modern Urban Landscap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 잡지 및 신문

19. 건축가, 1995. 8월호(이하 본문에서 9508로 표기).
20. 건축문화, 8907, 9801.
21. 건축과 환경, 8707(특집: 1920년대 한국건축과 오늘날 한국현대건축의 상황), 8709, 8809(특집, 한국근대건축의 재규명), 9009.
22. 공간, 6611(창간호), 6702, 6707, 6709, 6710, 6711, 6802, 6804, 6812, 6904, 6905, 6911, 6912, 7002, 7003, 7005, 7007, 7012, 7305, 7505, 7510, 7601, 7805, 7811, 7902, 7906, 8007, 8008, 8112(특집: 한국현대건축의 발달과 흐름), 8308, 8401, 8402, 8404, 8407, 8408(특집: 소규모 상업건물), 8410, 8412, 8502, 8505, 8706, 8707, 9111, 9605.
23. 꾸밈, 8708(특집: 한국근대건축의 극복과 수용의 문제)
24. 문학정신, 9303(특집: 문학작품 속의 도시공간).
24. 플러스, 9411, 9508(특집: 해방 50년 건축 50년 한국건축의 새로운 아이덴티티), 9606, 9705(특집: 이시대 우리건축 왜 다시 ‘한국성’인가).
26. 건설환경신문, 1997. 3. 3.
27. 동아일보, 1988. 6. 15, 1993. 5. 3.
28. 문화일보, 1993. 2. 10, 2. 26.
29. 서울신문, 1993. 6. 5.
30. 일간스포츠, 1991. 7. 4, 1992. 10. 8-12. 24(‘젊은이의 이색지대 현장’ 연재).
31. 조선일보, 1992. 5. 16, 1992. 7. 6, 1993. 2. 9, 5. 5-19(변하는 ‘우리동네’ 연재), 1993. 5. 26, 1995. 3. 14, 1997. 2. 26.
32. 청년건축인협의회 선언문, 1987. 11.
33. 중앙일보, 1995. 2. 6, 1996. 2. 10, 1997. 4. 7.
34. 토요신문, 1995. 3. 4.
35. 한국일보, 1991. 7. 14-29(‘건축신책’ 연재), 1992. 4. 25, 1996. 6. 21.